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23

“우리도 편다”



민명철 용진육아원 원장(세번째 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원생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워치라이터 jrwi@kwangju.co.kr

“희망 안고 힘껏 달릴거예요”

■ 용진육아원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이웃사랑의 장으로 마라토너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광산구 임곡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내 용진육아원 원생 56명이 참여하는데 대한화재 광주지점(지점장 김동호)직원들이 뜻을 모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용진육아원 원생들이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 참여를 원했지만 참가비 문제로 고민하던 중 김동호(50) 대한화재 광주지점장이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지원을 하기로 한 것.

대한화재 광주지점서 참가비 지원

김동호 지점장은 “보험 철학이 곧 나눔의 정신이자 봉사의 정신이기 때문에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며 “이번 3·1절 전국마라톤출전을 기회로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점장을 비롯 100명이 3·1절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대한화재 직원들은 이번대회에서 용진육아원 원생들과 함께 페이스를 맞춰 등위에 상관없이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며 달릴 계획이다. 김 지점장은 “대회 후 직원들이 육아원 원생들과 함께 식사

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지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민명철(59) 용진육아원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3·1절 마라톤 대회출전을 고대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화재에서 도움을 줬다행이다”며 “주변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달리는 이번대회는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변의 온정 아이들에게 큰 교육”

용진육아원은 지난 1952년에 개원해 현재 초등학교생 33명, 중학생 12명, 고등학교생 20명, 대학생 8명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8명의 대학생은 조선대학교 사범대와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동신대 물리치료학과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번대회를 학습고대 하고 있는 이성진(일곡초 5), 이성민(일곡초 3)은 학교에서 달리기 짝이다. 체육대회등 달리기대회에서 1등은 항상 성진군과 성민군 차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1등을 하겠다는 성진군과 성민군은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정도. 흑시라도 누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곧바로 자신도 훈련에 임하고 있다.

김동호 지점장은 윈드서핑, 페달글라이딩등 모든 레포츠에 능한 만능스포츠 맨이다. 지난해에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등 4개 대회 하프마라톤에 출전한 마라톤 매니아기도 하다.

민명철(60) 원장은 “주변에서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원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이번 마라톤출전을 계기로 원생들이 체력증진과 모두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리거 ‘자존심 대결’

■ 내일 한국-그리스 평가전 포인트

FIFA 랭킹 51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6위 그리스와 7일 오전 5시(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 스타디움에서 새해 첫 A매치를 치른다. 베어벡호와 그리스의 이번 일전은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가 많다. 2007년 첫 A매치인데다 제3국 경기이고 두 팀 모두 해외파를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최근 ‘벤치 신세’ 설기현 재도약 기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대결 = 이번 대표팀의 중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삼총사다. 무대가 영국인 까닭도 있지만 겨울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K-리거를 보다는 한창 실전을 치르고 있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의 감각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프리미어리거가 두 명 버티고 있다. 공격수 기오르그스 사마라스(맨체스터 시티)와 미드필더 스텔리오스 지안나코풀로스(볼턴 원더러스).

사마라스는 이번 시즌 25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해 4골과 5도움을 올렸다.

지안나코풀로스는 작년 A매치에서 네 골을 터뜨렸다. 볼턴에서는 주전과 백업을 오

간다.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삼총사와 그리스 두 명의 대결이 흥미롭다.

◇설기현 ‘재도약의 호기’=설기현은 베어벡호의 중심 멤버로 활약해왔다. 작년 9월 상암에서 열린 이란전에서 선제골을 뽑고 대만전에서도 두 골을 터뜨려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설기현은 벤치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고 올해 들어서는 출전 엔트리에도 벌써 세 번이나 빠졌다.

따라서 설기현에게 그리스전은 놓칠 수 없는 재도약의 기회다.

◇제3국 경기 ‘승리는 쉽지 않다’= 2006년 6월4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이스터로드 스타디움, 독일월드컵 본선을 눈앞에 둔 아드

보카르토는 제3국에서 아프리카 강호 가나와 최종 평가전을 거쳤다. 결과는 1-3 완패. 아사모아 기안, 마이클 에시엔의 화려한 개인기와 골 결정력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

한국 축구는 종종 제3국에서 A매치를 치렀지만 승리는 쉽지 않았다.

작년 1-2월 전지훈련을 겸한 중동, 홍콩, 미국 투어에서 3승1무2패를 기록했다. 핀란드, 크로아티아, 멕시코를 이겼지만 덴마크와 코스타리카에는 달미를 잡았다. 아무래도 익숙한 상암벌이나 국내 경기장에서 플레이할 때보다 힘든 것은 사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성-영표 ‘27분 대결’

맨유, 토트넘 4-0 대파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30·토트넘)가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10개월만에 맞대결을 벌였다.

맨유는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에서 호날두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네만자 비디치, 폴 스콜스, 라이언 깁스의 연속골로 토트넘을 4-0으로 대파했다.

이영표는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고 박지성은 후반 23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대신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임까지 27분간 그라운드를 함께 누볐다.

이영표가 왼쪽 풀백, 박지성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맡아 마주칠 기회가 있었지만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바람에 격렬하게 맞대결하지는 않았다. 펠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현장에서 지켜본 가운데 처음이며 통산 세 번째다.



적으로 맞대결을 하고 있는 형과 아우는 어떤 심정일까. 이영표(왼쪽)와 박지성이 5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중 볼을 다루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규리그 10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한 이영표는 전반엔 만점짜리 활약을 펼쳤다.

전반 2분 팀의 첫 번째 슈팅을 작렬한 이영표는 7분 깁스를 제친 뒤 크로스를 올렸고 9분엔 코너에서 호날두의 볼을 가로챘다. 전반 36분엔 볼을 차단하면서 공세로 전환할 때 뛰어난 루니의 파울과 옐로 카드를 이끌어냈다. 38분에도 문전에서 루니의 결정

적인 돌파를 막았다.

맨유는 후반 3분 마이클 캐릭의 코너킥을 비디치가 헤딩으로 꽂아넣고 후반 9분 호날두가 오른쪽 측면 엔드라인에서 이영표를 제치고 갈아준 푼볼 크로스를 스콜스가 텅 빈 골문에 밀어넣어 3-0으로 달아났다.

박지성과 이영표는 나란히 평점 6점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BS Sports and other programs, including '통일배 전국 알파인스키' and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Large advertisement for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7 China Famous University Admission Class Recruitment) with details on dates and locations.

Advertisement for '동아외국어학원' (Dongah Foreign Language Academy) featuring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and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